

보도 일시 (인터넷) 2023. 1. 22.(일) 09:00 (지 면) 2023. 1. 23.(월) 조간	배포 일시 2023. 1. 19.(목) 08:30
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	책임자 과 장 최윤정 (044-203-6730) 담당자 교육연구사 남덕호 (044-203-6733)

다문화 학생, 강점을 살려 진로를 찾다!

- 다문화가정 진로교육 콘텐츠(「직업탐구 별일입니다」 시즌3) 개발·보급-

주요 내용

-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·직업인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공유
 - ‘직업탐구 별일입니다’ 시즌3 ‘다문화 직업인편’ 총 20편을 진로교육 온라인 누리집 커리어넷과 유튜브 채널 교육부TV 통해 보급
-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‘직업탐구 별일입니다’ 시즌3 ‘다문화 직업인편’ 총 20편을 개발·보급한다.
 - ‘직업탐구 별일입니다’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·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,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육 콘텐츠로서,
 - 1월 23(월)부터 매주 월·화 2회씩, 10주간 진로교육 온라인 누리집 커리어넷과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.
- ※ (커리어넷) www.career.go.kr / (교육부TV) <https://youtube.com/@ourmoetv>
- ‘직업탐구 별일입니다’ 시즌1·2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‘진로교육 현황조사’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호 직업, 신산업 분야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.
 - ※ 「별일입니다. 시즌1」 (40편, 2021), 「별일입니다. 시즌2」 (50편, 2022)
 - 시즌3은 한국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개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·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.
 - ※ 다문화 학생 수 : (2020) 14.7만 명 → (2021) 16만 명 → (2022) 16.8 만 명

- ‘직업탐구 별일입니다’ 시즌3에서는 다문화 고등학생 3명, 다문화 대학생 5명, 다문화 직업인 13명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그리고 다문화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현장 탐방형 미니 다큐형식으로 공유한다.

<커리어넷 및 교육부 TV 탑재 일정>

순번	탑재일	출연자	순번	탑재일	출연자
1	1월 23일	초등교사, 바수데비	11	2월 27일	요리사, 메디엘리티
2	1월 24일	용접사, 오콩크페이버	12	2월 28일	호텔경영인을 꿈꾸다, 박올가
3	1월 30일	육상코치, 장주원	13	3월 6일	들어 봤니? 다문화 기술고
4	1월 31일	간호사, 김소영	14	3월 7일	다솜 이야기 둘, 꿈돌이 사총사
5	2월 6일	치위생사를 꿈꾸다, 현나영	15	3월 13일	비행교관, 르바타재민
6	2월 7일	웹 개발자를 꿈꾸다. 파스칼	16	3월 14일	사회복지사, 유한미
7	2월 13일	물리치료사, 이창우	17	3월 20일	CRS전문가를 꿈꾸다. 라자마리엄
8	2월 14일	화가를 꿈꾸다, 박찬영	18	3월 21일	사법통역사, 임재은
9	2월 20일	변호사, 공지연	19	3월 27일	영화감독, 박루슬란
10	2월 21일	격투기 선수, 오일학	20	3월 28일	은행원, 당민지

- 1편은 고양시 성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바수데비 선생님부터 시작한다. 그리고 용접사, 변호사, 화가, 간호사, 대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 학생 및 직업인의 진로탐색 과정을 소개한다.
-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직업인들의 사례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·계획·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한다.
- 또한 보급되는 자료는 학교 등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.
-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“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이에 다문화 학생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”라고 하면서,

- “2023년에는 ‘직업탐구 별일입니다’ 시즌3 개발과 함께 다문화가정 진로 콘서트,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